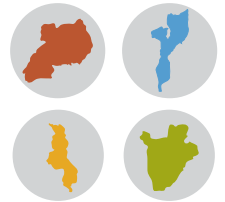




월드비전 희망학교 사업보고서 2012 - 13

희망TV SBS 와 함께하는 아프리카 희망학교 건립 캠페인



후원자님 덕분입니다.

희망TV SBS와 월드비전이 함께하는 희망학교 프로젝트를 통하여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희망찬 미래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후원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 2012 희망TV SBS를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월드비전은 아프리카 4개 지역에 5개의 희망학교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건축된 이 학교들이 어린이들과 지역 주민의 삶에 가져온 긍정적인 변화의 이야기들을 후원자님과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희망학교 프로젝트를 위해, 그리고 학교 안을 가득 채울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위해, 후원자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영구학생들에게는 책걸상이 생겼다는 게 가장 좋아요. 이전에는 치마를 입고 바닥에 엎드려 글을 썼기 때문에 질문을 하거나 대답하기 위해 일어섰다 앉을 때마다 무척 불편했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편리한 책걸상이 모두에게 주어졌서 마음껏 질문하고 마음껏 수업에 참여할 수 있어요. 저는 커서 교육관련 공무원이 되는 것이 꿈이에요. 이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시는 한국의 후원자님들께 감사 드려요.”

-타다라(Tadara), 말라위 치치키 크리건 교관



“새 학교가 지어지기 전, 학교의 열악한 시설 때문에 많은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교실이 부족해 나무 아래에서 수업을 하고,筆記도 없는 지저분한 화장실을 800여명의 학생이 사용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새 학교가 완공된 후, 우리 학교는 학부모님들과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열과 교사들의 교육의지도 한층 높아졌고요. 이로 인해 더 많은 학생이 중등학교로 진학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도와주시는 한국의 후원자 분들과 월드비전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레비슨 치롬바(Levison chiomba), 말라위 치치키 크리건 교관 선생님

부룬디 루레게야 희망학교 카바고 희망학교

Brundi Ruregeya primary school
Kabago primary school

부룬디는 어떤 나라일까요?



아프리카 중부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부룬디는 1962년 독일과 벨기에로부터 독립한 이후 후투족과 투치족의 오랜 내전으로 수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2005년 전쟁은 끝났지만 여전히 짐바브웨, 콩고민주공화국, 라이베리아의 뒤를 잇는 아프리카 최빈국입니다. 7세부터 6년간의 초등교육이 무상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있지만 부족한 학교시설로 인해 전체 어린이 두 명 중 한 명이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업지역	루타나주 킨잔자, 기타바 지역
사업기간	2012년 3월 ~ 2012년 9월
수혜 학생 수	루레게야 희망학교: 357명 카바고 희망학교: 335명
사업예산	USD 100,000 (한화 120,000,000원)



부룬디 사업담당자
Donatien Buzoya

희망학교가 생기기 전 아이들과 마을은 어떠했나요?

루레게야와 카바고 지역의 아이들은 초등학교가 너무 멀어 학교를 잘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있는 학교도 튼튼하지 않은 벽돌로 지어 여러 번 붕괴 위험을 겪었습니다. 또 창문도 없어 비가 오면 빗물이 교실로 들어오고 교실은 항상 습기로 눅눅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교실환경 때문에 몇몇 학생들은 감기와 같은 급성 호흡기 감염으로 고생하고는 했습니다. 그 결과 학교를 그만 두거나 어쩔 수 없이 먼 지역에 있는 학교를 출석하는 아동도 있었습니다.

희망학교가 생긴 후 아이들과 마을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루레게야 희망학교와 카바고 희망학교가 생긴 후 학교에 등록된 학생의 수와 출석율이 높아졌습니다. 아동들의 건강상태도 좋아졌고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되어 학습에 대한 욕구도 높아졌습니다. 또 희망학교는 월드비전과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건축 되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도 학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지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재를 제공하는 등 학교 건축에 발벗고 나서주었습니다. 이렇게 직접 지은 학교로 인해 자녀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 더욱 높아지리라고 기대됩니다.

Before



무너진 교실 벽

Af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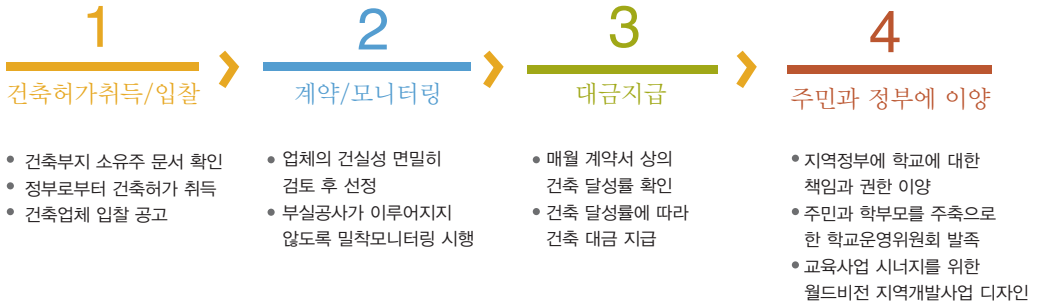
완공된 교실에서
수업받는 학생들



완공된
희망학교 간판

학교지원 사업 들어다보기

아프리카 학교 건축의 단계



현장에서 온 편지

안녕하세요. 아이티와 스와질랜드에서 학교지원사업을 수행해 온 월드비전 국제구호팀 강도욱입니다.

월드비전의 학교 지원 사업은 크게 사업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학교건축, 화장실 건축 및 기자재 제공 등이 해당되는데, 월드비전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업체선정 과정을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학교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자재를 최대한 활용하여 비용 절감과 동시에 지역주민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예로 레스토랑과 같이 돌이 많은 나라에서는 돌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로는 아동보호교육, 식수위생교육, 교사 훈련, 재단 훈련, 직업 교육 등이 있는데, 사업 대상 지역의 특징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혼합해 진행함으로써 사업이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학교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 시켜 그 효과에 지속성을 추구합니다. 아이티에 지어진 한 학교의 경우 가계 소득이 전혀 없던 학부모와 주민들에게 건축 기술을 가르치고 실제 사업에 고용함으로써 소득창출과 기술교육을 동시에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지어진 학교는 대부분 지역정부나 교육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지어진 공립학교이기에 해당 국가 정부에서 계속해서 지원하고 관리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게 됩니다.

아프리카와 같이 변수가 많고 사회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서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모든 교육 내용을 담아 사업을 제 시간에 종료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어 장차 그 나라의 리더가 될 아동들에게 고품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월드비전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NGO
WFP공익협력기관



2006 영국OWT
책임성조사 NGO중 1위



2010 호암상
사회복지상 대상수상



2010 대한민국 BSC
전택당영대상 수상



제5회 삼일투명경영대상
수상기관

월드비전은 1950년 설립되어 현재 전 세계 100여개국에서 1억명의 지구촌 이웃을 돕는 국제구호개발옹호기구입니다.